

시멘트 가격 22% 인상 “갈등”

경영난 심화로 인상 불가피 ... 레미콘·건설 일방통보 수용불가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시멘트 생산기업들이 2009년 들어 일제히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관련기업에 통보했다.

하지만 수요처인 레미콘 생산기업과 건설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시멘트 가격을 둘러싼 시멘트-레미콘-건설기업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등 시멘트 메이저들은 2009년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7만2000원으로 기존의 5만9000원 대비 22%(1만3000원) 인상키로 했다고 2월5일 발표했다.

2008년 말부터 환율이 크게 올라 시멘트 생산의 주원료인 유연탄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누적 경영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성신양회는 2007년 222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내고, 2008년 3/4분기까지 2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는 등 3년 연속 손실이 발생했다.

쌍용양회도 2008년 3/4분기까지 1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06년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시멘트기업 관계자는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국산 유연탄 가격이 현재 톤당 100달러 이하로 하락했지만, 2008년 185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구입한 유연탄이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전력비·운임비 등도 최근 1년 새 10-15% 상승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미콘기업들은 쌍방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려 한다며 시멘트기업이 발송한 세금계산서를 돌려보내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레미콘기업 관계자는 “유연탄 가격이 하락 추세인데 단번에 22%나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레미콘기업들도 불경기로 경영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수요처 입장은 배제하고 시멘트 가격만 올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건설사들 역시 “일방적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세금계산서를 돌려보내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기업들은 이번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급중단 등의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06>